사무총장 없이 조직위 출범해 논란 불러

2019세계수영대회 FINA '공문 파문'

윤장현 시장 "총장 인선은 조직위원장 고유권한" 반박

총장 후보 국회의원 출신 급부상… 체육계 인사도 거론

국제수영연맹(FINA)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사항 미비를 이유로 개최 취소 가능성을 거론한 서신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낸데 대해 광주시가 12일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꺼내들면서 '공문 파문'이 가라앉을지 주목된다.

FINA는 문체부에 보낸 서신을 통해 대회 예산, 마케팅·홍보 계획, 경기시설 확정, 능력과 경험을 갖춘 조직위 사무총장 인선 등 4가지에 대해 정부의 보증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FINA는 실제 대회를 준비할 조직위의 '지각 출범'과 조직위가 출범했음에도 조직을 이끌어갈 조직위 사무총장을 인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장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FINA가 지적한 경기시설 확정에 대해서는 지난달 10일 코넬 마르쿨레스쿠 FINA 사무총장 등 실사단이 광주를 방문, 경기시설 등을 둘러본 것으로 사실상 모든 협의를 마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청 안팎에서는 FINA가 사실상 조직위 사무총장 인선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가 조직위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한 것이 이번 서신의 주요 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시는 애초 조직위 사무총장으로 김윤석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 사무총장을 사실상 내정했다가 백지화했다. 결국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 없이 지난달 조직위가 출범한 것이 FINA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장현 광주시장은 12일 코넬 총장 앞으로 보낸 답신을 통해 "대회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FINA가 우려한 4가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을 했다. 특히 사무총장 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수영대회 사무총장 인선 문제는 조직위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언급, 자신의 의지대로 사무총장을 선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윤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김윤석 총장이 U대회 사무총장직을 올 연말까지 맡고 있으니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 지혜나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는데 상황이 비화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선임을 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는 새로운 인물을 물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실제 광주시는 새로운 인물 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주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J씨가 급부상하고 있다. 한때 장관급 요직에 있었던 J씨는 광주에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중앙부처 인맥이 넓고 대외적인 감각도 뛰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무총장 후보로 정용화 U대회 조직위 부위원장과 지역 체육계 인사인 K모씨 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FINA가 광주시와 문체부 등에 사무총장 인선과정의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경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화순탄광·조선산업 구조조정 현안 협력

전남도노사민정 평화실천대회

전남도 노동계, 사용자(경영자), 민간단체, 정계 등 각계각층이 지역 노동현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전남도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1일 화순군민회관에서 청년이 돌아오는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전남지역 노사민정 산업평화 실천 대회를 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 이신원)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남도노사민정협의회장인 이낙연 전남지사, 이신원 의장, 석동헌 전남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이송자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 회장, 구충곤 화순군수, 김양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노사민정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전남지역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드는데 노사민정이 뜻을 모아 공동 노력하며, 노사민정의 실천을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화순광업소와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 지역 노동 현안에 대해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 해결 방안 찾고, 노사민정이 화합과 배려의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나갈 것을 선언했다.

한편 전남도는 중앙정부(고용노동부)의 노사상생협력 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8년 연속 최우수 또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북구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주민발의 선포식 광주시 북구는 지난 11일 북구청소년수련관에서 송광운 북구청장, 심재섭 북구의회의장과 북구의원들을 비롯한 어린이, 청소년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구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주민발의 선포식'을 가졌다. 〈북구청제공〉

'1913 송정역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명성 굳힌다

접근성·맛·젊음·편리성 중점

55개 점포 하루 방문객 7000명

'1913 송정역시장'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명성을 굳히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지원으로 지난해 5월부터 공사를 거쳐 지난 4월 문을 연 '1913 송정역시장'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점포 36개, 청년상점 17개, 팝업스토어 2개 등 55개 점포가 운영중으로 하루 평균 7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갈 만큼 인기가 치솟고 있다. '1913'은 현재 송정역시장의 전신인 '송정역전 매일시장'이 형성된 시기를 뜻한다.

시는 KTX 광주송정역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접근성', 먹거리를 특화한 '맛', 문화 체험형 이벤트가 가득한 '젊음', 배송시스템과 모바일앱을 통한 '편리성' 등에 현대화사업의 초점을 맞췄다.

역 앞 상징물인 시계, 도로 바닥에 건물별 장사 시작연도를 알리는 동판은 전통시장을 시간을 담은 장소로 시각화했고 아케이드 대신 설치된 해가림막은 분위기를 바꿨다.

열차 이용객을 겨냥해 열차안내 전광판을 시장 내 쉼터에 설치했으며 '누구나 가게'는 창년 창업자들의 상품에 대한 사전 검증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역서(여기서) 사소'에서는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콘셉트로 한 디자인 제품을 팔고 오래전 문 닫은 새마을금고는 이색 맥주가게로 변모했다.

계란밥이나 수제 초코파이 가게, 장인에게 물려받아 사위가 운영하는 제분소 등 저마다 간직한 이야기는 '스토리보드'에서 소개돼 눈길을 끈다.

최근 시장을 방문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전통시장으로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100년 역사를 다시 만들어 가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뉴스&정보 브리핑

광주시 전기차 50대 민간보급 대상자 모집

광주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50대를 민간에 보급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보급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면서 전기자동차 운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유통업체, 일반 시민 등으로 선착순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보급하는 전기차는 기아자동차 레이(Ray)와 쏘울(Soul), 닛산의 니프, 르노삼성 SM3, 한국지엠 스파크,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BMW i3 등이다.

희망자는 13일부터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본인이 선택한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전남농업을 빛낸 인물 100선' 공모

전남농업·농촌을 개척하고 발전시킨 인물이 실린 '전남농업을 빛낸 인물 100선'이 발간된다.

전남도는 오는 24일까지 광복 이후 공무·농업진흥·신기술·농업유산 등 전남농업의 선구자 역할을 한 인물을 추천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세부 추천 부문은 경영소득, 농업(농촌) 문화, 도농 교류 및 농촌 휴양자원 사례, 농축임산물 유통 등이다. 추천자 신청은 각 시군 농업정책과에 하면 된다.

전남도 13~26일 온라인 채용박람회

전남도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박람회장 방문 없이 안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희망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온라인 채용박람회는 인터넷에 익숙한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해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지역 250개 기업을 모집해 지난 5월 동부권 잡매칭데이에서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들을 포함해 청년, 특성화고·대학 졸업자 등 1000명이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무안 친환경쌀 부산 학교급식 공급

해운대구·수영구 등 동부 5개구에 200t 납품

전남 친환경쌀이 부산 동부지역 5개구에 15일부터 첫 공급된다. 공급 지역은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등으로 총 공급량은 200t이다.

공급 업체는 무안 꿈여울친환경영농조합으로, 부산시 기장군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에서 밥맛, 안전성 등 엄격한 쌀 품질 검사를 통해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 친환경쌀의 부산지역 학교급식 공급량은 550t으로 늘었다. 그동안 보성 북부농협에서 강서구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200t, 해남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이 연제구 초·중학교 22개교에 150t을 공급해왔다.

이는 부산지역 초등학교 친환경쌀 소요량 2800여t의 20%를 차지하는 규모다. 부산시에서는 동부, 서부, 중부 3개 권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전체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할 계획으로 2014년 기장군과 강서구에 각각 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금정구는 내년에 개장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친환경쌀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로 기존 납품처 공급을 늘리고, 금정구급식지원센터에도 공급되도록 홍보 판촉활동을 강화해 부산 전 지역 학교에 친환경쌀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춘봉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부산지역 추가 공급은 친환경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타 시·도 학교급식에 꾸준한 홍보 판촉활동을 펼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서울, 광주, 부산, 울산, 대구 등 대도시와 경상도, 제주도 등 친환경쌀 생산이 적은 지역에 공급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은 전국 친환경쌀 재배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소요량의 56%를 납품하고 있다.

전남도는 2015년부터 도내 보육시설, 초·중·고교 학교급식에 전국 최초로 유기농쌀을 공급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밝은광주안과의원
눈매교정술
졸린 눈, 짝 눈, 눈꼬리가 처진 눈,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
비절개 눈매교정수술
눈꺼풀을 절개 하거나 당기지 않으며, 눈꺼풀 안쪽으로 실을 넣어 눈을 뜨는 근육의 일부를 묶는 방법으로 눈매를 교정합니다. 현미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절개법에 비해 부기가 적고 회복기간이 짧아, 크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 눈 성형은 미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눈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 시술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 세밀하고 전문적인 수술에 익숙한 성형안과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진료내용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증,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 두 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수신경계 : 외상성척수손상, 척수종양,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천변 방향
세종요양병원
장기요양 · 수술후 재활 · 암케어병동 · 치매 · 중풍 · 집중치료실 · 인공신장실
의사 · 한의사 협력 진료 병원
대표전화 (062)236-5200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